

첫승 갈증 꼭 푼다

광주 “남궁도·여승원 투톱 제주 사냥”



“따뜻한 제주에서 첫 승 신고하겠습니다.”

광주는 특히 4월 들어 6경기(컵 대회 포함)에서 5골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제주는 4월 5경기에서 2득점을으로 빙곤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경기당 1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진도 불안하다. 광주의 우세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광주는 이날 남궁도와 여승원을 투톱으로 내세우고, 미드필드진엔 이동식, 김영진, 전광진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수비는 최근 ‘찰떡호흡’을 선보이고 있는 한태우와, 이운섭, 김윤구가 스리백으로 투입된다.

광주는 정규리그에서 2무4패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6경기(컵 대회 포함)에서 2승2무2패로 약진하며 상승기류에 편승한 상태로 첫

승 전망은 밝아보인다.

광주는 특히 4월 들어 6경기(컵 대회 포함)에서 5골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제주는 4월 5경기에서 2득점을으로 빙곤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경기당 1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진도 불안하다. 광주의 우세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광주는 이날 남궁도와 여승원을 투톱으로 내세우고, 미드필드진엔 이동식, 김영진, 전광진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수비는 최근 ‘찰떡호흡’을 선보이고 있는 한태우와, 이운섭, 김윤구가 스리백으로 투입된다.



“박지성 남은 시즌 못 뛸 수도”

英 언론 보도…소속사 “몸 상태 이상없다”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임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박지성(26)이 시즌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영국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인터넷판은 20일(한국시간) “박지성이 무릎 부상으로 올 시즌을 끝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웨인 루니와 관련된 기사 후반 맨유 소속 선수들의 부상 현황을 전하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박지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것이다.

무릎 부상으로 지난 8일 프리미어리그 포츠머스

전부터 결장하고 있는 박지성은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성의 소속사인 JS리미티드의 박현준 팀장은 “축구는 보도인 것 같다”면서 “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게 아직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박지성은 부상 이후 처음으로 19일 팀 훈련장에 나가 가볍게 상체 중심의 운동을 했다”면서 “몸 상태에는 이상이 없으며 현재 검사 결과와 구단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잡힐까…안 잡힐까

20일 플로리다의 둘핀구장에서 열린 미 프로야구 플로리다 마린스와 뉴욕 메츠의 경기. 3회초 플로리다 마린스의 유격수 알프레도 아메자가 뉴욕메츠의 유격수 호세 레이의 타구를 디아벳 캐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언 3인방’ 안풀리네

위창수·앤서니 김·나상욱 중하위권

PGA 쥐리히클래식 1R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쥐리히클래식에 출전한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 나상욱(23·코브라골프) 등 ‘코리언 3인방’이 모두 중하위권에 그쳤다.

20일(한국시간) 루이지애나TPC(파72·7천341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위창수와 앤서니 김은 나란히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 52위에 머물렀다.

단독 선두 카일 리퍼스(미국·64타)에 무려 7타나 뒤져 상위권 진입이 쉽지 않을 전망.

위창수는 버디 5개나 뽑아냈지만 4번홀

(파4) 더블보기에 보기 2개를 곁들이는 등 기복이 심했고 버디 4개를 잡아낸 앤서니 김 역시 9번홀(파3) 더블보기와 12번홀(파4) 보기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17일 끝난 버라이즌 해리티지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던 나상욱은 1오버파 73타를 쳐 공동 102위까지 밀려났다. 샷과 퍼팅이 다 같이 흔들린 나상욱은 버디 3개에 더블보기 1개, 보기 2개를 곁들였다.

닥스 아마 골프 최강전

오는 23일 나주서 개막

LG페션 주최 ‘제7회 닥스 아마추어 골프 최강전’이 23일 나주 골드레이크골프장에서 열리는 1차 예선을 시작으로 5개월간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는 8월까지 5차 예선을 거쳐 9월10일과 11일 경기 이전 비에이비스타골프장에서 2라운드 방식의 결선을 치른다.

대회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36명의 1차 예선 참가자를 선정하고, 예선을 거쳐 24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승용차가 주어지고, 준우승자는 300만원 상당의 LG페션 상품권을 받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14 장애인 아시안게임’

인천서 동반 개최 가능성

제11회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2014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에서 동반 개최될 전망이다.

20일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위원회(위원장 신용석)가 대회 유치 성공시 같은 해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열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11회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9.19~10.4.20)이 끝난 후인 10월 중순 인천에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올림픽 유치 도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협약에 따라 장애인올림픽을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지만 OCA와 아시아장애인을

림픽위원회(APC)는 협약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나 APC가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 OCA와 협약을 명문화하기로 했고 인천 유치위도 장애인 아시안게임 동반 개최 의지를 OCA에 전달했다.

지금까지 장애인 아시안게임(종전 명칭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은 제7회 대회와 8회 대회가 하계아시안게임 개최지였던 태국 방콕(1999년)과 한국 부산(2002년)에서 각각 열렸다.

하지만 제9회 대회는 2006 아시안게임 장소였던 카타르 도하가 아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제10회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2010년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중국 광저우가 유치했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호화군단 꼭 잡는다

전남 “안방서 수원 꺾고 상위권 도약”

전남드래곤즈도 같은날 오후 3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호화군단’ 수원 삼성을 맞아 힘겨운 대접전을 치른다.

1승4무1패로 8위에 랭크된 전남은 산드로와 산드로 C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송정현, 임관식, 김태수, 김승현 등으로 구성된 막강 미드필드진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원의 하락세도 광주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8일 FC서울을 1-0으로 누르고 3연패에서 탈출했던 수원은 부산, 대구와 2연속 무승부에 그친 데 이어 18일 컵 대회에서 창단 2년차경남에

게 패하는 등 또 다시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 ‘호화군단’이란 애칭처럼 수원은 ‘운명 3인방’ 나드손과 에두, 마토 등으로 구성된 막강한 공격진을 자랑한다.

허정부 전남 감독은 “관중몰이”를 하고 있는 수원과의 대결인 만큼 흥 팬들에게 꼭 승리를 선사하겠다”면서 “공격진의 집중력이 되살아나고, 수비진도 안정감을 찾고 있어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지선〈광주시 체육회〉 배영 50m ‘금 물살’

동아수영대회 고영호(전남중)·김지현(광주체중)도 ‘金’

이지선(광주시 체육회)이 제79회 동아수영대회에서 금빛 물살을 길렀다.

이지선은 20일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일반 배영50m에서 30초66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고영호(전남중 3)도 남중 자유형 400m에서 4분08초37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창봉(남고 3)은 평영200m에서 2분23초15를 기록, 은메달을 따냈으며 황준호(광주체고 1)는 남고 자유형 100m에서 53초47로 동메달을 따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김지현(광주체중 1)이 여중 배영 200m에서 2분19초69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박경화

(광주시 체육회)는 여자일반 접영100m에서 1분03초61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태환 계영 ‘마지막 영자’로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울산 문수실내수영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제79회 동아수영대회 계영 800m와 혼계영 400m에서 마지막 4번 영자로 나선다.

현종호 경기고 수영감독은 20일 “두 종목 모두 박태환을 마지막 영자로 내세울 것”이라며 “고등부 선수 가운데는 태환이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팀 우승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영에서는 첫 번째 영자의 기록만 공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기록 단축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박태환의 첫 경기는 21일 오후 열리는 계영 800m. 박태환은 동료 3명이 자유형으로 200m를 번갈아 뛴 뒤에 번째로 해엄쳐 터치패드를 치는다.

대회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열릴 혼계영 400m에서도 박태환은 4번 영자로 나섰다.

광주체고 금메달

전국종별체조선수권

광주체고가 제62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고는 20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고등부 단체종합에서 210.850점을 획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은경(광주체고 1)은 개인종합에서 55.10점을 얻어 역시 금메달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



21일(토)

▲한국여자 프로골프 대회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 FR(14 : 00·Xports)

▲프로농구 월파언결정 2차전(14 : 45·KBS1)

▲K리그<경남-성남>(14 : 50·SBS스포츠), <전남-수원>(15 : 30·MBC ESPN)

▲프로야구(LG-삼성)(16 : 30·KBS SPORTS), <현대-롯데>(16 : 30·KBS SPORTS)

▲일본 프로야구<한신-요미우리>(18 : 00·MBC ESPN)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토트넘-레딩>(21 : 30·MBC ESPN), <볼튼-레딩>(23 : 00·MBC ESPN)

22일(일)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Utd-미들스브로>(01 : 00·MBC ESPN)

▲PGA투어 쥐리히 클래식 3R(05 : 00·SBS스포츠)

▲NBA 8강 플레이오프(10 : 30·SBS스포츠)

▲한일프로배구 탑매치(13 : 40·KBS1)

▲프로야구(LG-삼성)(16 : 50·SBS스포츠), <현대-롯데>(17 : 00·KBS SPORTS)